

고령자창업을 통한 고령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이상*

<목 차>

I. 서론	2. 자금지원 측면
II. 고령화사회와 고령자창업	V. 고령자창업 활성화방안
1. 고령화의 사회적 추세	1. 교육지원체계의 강화
2. 고령자창업	2. 금융지원체도의 정비
III. 일본의 고령자창업	3. 창업네트워크의 활성화
1. 일본의 고령화	VI. 결론
2. 일본의 고령자창업 특징	참고문헌
IV. 고령화에 대한 정책	Abstract
1. 교육지원 측면	

I. 서 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 중의 하나는 바로 수명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특히,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명연장과 함께 다가올 미래의 삶의 질을 얼마나 인간답게 향유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이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출생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의 구성비가 불균형화 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¹⁾가 진행되는

* 동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1) UN의 정의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고령자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

국가로서 고령인구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6년으로서 프랑스의 155년, 영국의 91년, 미국의 88년, 일본의 36년에 비해 전 세계에서 고령화현상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7). 특히,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에 걸쳐 태어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있어 주역으로 활약하였던 베이비 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퇴직이 멀지 않아 이들의 노후보장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엄동욱, 2005).

과거에 기존 고령자가 처하였던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여건과는 달리, 이들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은 이전의 소위 ‘전쟁세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나은 양육과 성장의 뒷받침이 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소득의 향상과 함께 막강한 소비력을 과시하면서 고도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 속에서 지내 온 이들에 대한 퇴직이후의 고령자고용제도,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노인창업이나 재취업 문제는 당면해 있는 청·장년의 실업문제에 밀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는 데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또한, 고령인력들에 대한 활용방안의 접근방법도 대부분의 연구가 청년의 연장, 임금피크제와 같은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의 지식수준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고령창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한 교육수준을 지니고 막강한 소비력을 갖추고 있는 이들 고령자 세대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고령자 창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미래를 자신 있게 준비하고 퇴직 후에는 창업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한 창업 지원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다가올 고령화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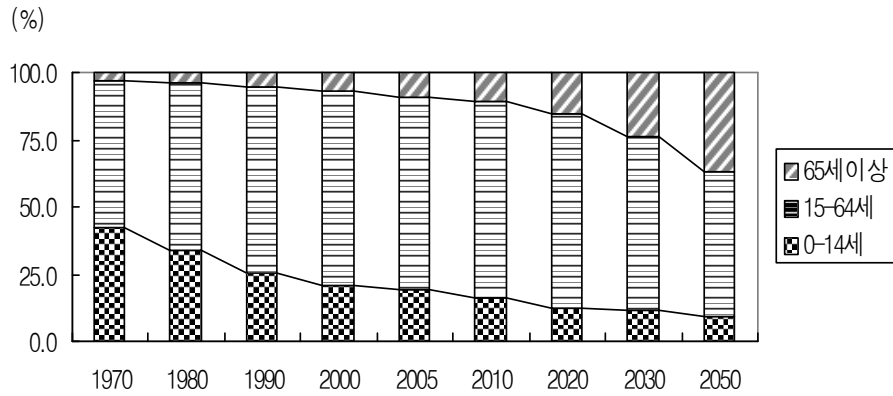
II. 고령화사회와 고령자창업

1. 고령화의 사회적 추세

1.1 고령인구의 증가

과거의 고령증과는 달리 경제력 있는 고령자계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자를 보살피고 편안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문제는 자녀들의 노력이나 노동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김동배 외, 2003). 따라서 고령자 자신을 위한 동시에 고령자의 주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이 요구된다(전채근, 2003).



자료 : 장래인구특별추계(2005), 통계청

<그림 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1.2 부양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대가족체계가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수의 감소와 여성 취업률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고령자에 대한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다(전채근, 2003). 2006년 기준으로 65세 고령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의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수원 외, 2006).

<표 1> 고령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단위 :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직업 없음	소일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 푸대접	경로의 식약화	노인시설 부족	기타
2002년	33.9	2.9	5.8	41.5	8.5	2.2	1.0	2.3	1.8
2005년	44.6	4.9	6.3	30.1	6.4	1.6	1.8	4.2	0.2

자료 : 고령자통계(2006), 통계청

또한, 기존의 고령자와 뚜렷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고령자세대들은 기존의 고령자계층에 비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활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년기를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실현의 기회 또는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등 과거의 고령자계층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부형, 2006) .

<표 2> 기존 고령자 vs. 베이비붐 고령자세대

구 분	과거의 고령자	베이비붐 고령자세대
생활의식	보수, 비관적 인생관	합리적, 미래지향적
노년기 의식	인생의 종말기	자기실현의 기회, 제3의 인생
삶의 태도	검약, 소박, 무취미	여유, 즐김, 여러 가지 취미
독립성	자녀 등에 의지	강한 독립심, 배우자 및 사회시스템에 의지
노후설계	자녀 세대에 의지	계획적인 노후설계
가치관	노인은 노인답게	나이와 젊음은 별개
레저관	일하는 재미, 여가는 수단	여가 자체의 가치 목적화
자산처분	자녀에게 상속을	자기를 위한 처분
여행형태	친목단체 등 단체여행	여유있는 부부여행
취미생활	게이트 볼 등 노인끼리 교류	취미 다양화, 다른 세대와의 교류
생활스타일	순한국식 선호	타 문화 교류적 생활

자료 : 야마우치 히사시(1991), 『뉴거대시장, 실버산업』, 경영정보출판.

1.3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

국민연금제도 확대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고령자계층이 대거 등장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실버금융상품으로 개인연금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고 퇴직을 대비한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설계에 있어 일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후의 경제적 자립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형(2006)에 의하면 50대 이상 전 가구의 자산보유액은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연령대별 가구의 37.5%이며, 연령대별 금융자산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2000년 기준)는 55~59세로 이후 감소하나, 65~69세에 달하더라도 전체 평균

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력을 보이고 있어 이들 고령자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요구된다.

<표 3> 연령대별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2000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구 분	금융자산
19세 이하	710	50~54세	26,723
20~24세	5,041	55~59세	29,235
25~29세	11,812	60~64세	27,156
30~34세	15,537	65~69세	21,233
35~39세	19,337	70~74세	10,034
40~44세	24,664	75세 이상	12,839
45~49세	25,871	평 균	21,300

자료 : 김재철 외, 인구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I-가계의 주식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2006.

2. 고령자창업

2.1 고령자창업지원의 의의

고령자 문제에 있어서 정년 이후의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년 생활에 대한 보장욕구는 건강한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자들이 보다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 창업의 기회를 확충할 필요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령자 창업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고령자들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령자계층이 안고 있는 고통과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국가가 연금제도 등을 통하여 부담을 해야 하므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대두된다. 따라서 일할 능력을 갖춘 고령자들의 창업 및 창업지원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지원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고령자 창업을 통하여 고령자 스스로가 경제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개인의 성취욕구와 인적자

원의 활용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변재관(1999)은 고령자 창업 지원의 의의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고령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노동시장에서 퇴직과 더불어 짧은 노후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기에 고령자의 취업문제는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고령자에 대한 시각을 제2의 현역세대로 보아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집약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창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고령자창업지원은 '일하는 고령자계층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부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경제적인 이유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상당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고령자계층의 창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사회적 부양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창업은 저소득계층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중산층의 고령자들까지도 전문성, 나이, 학력, 성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생현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령창업의 저변확대를 통한 지원이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령자 스스로가 창업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부양을 경감시키고 무엇보다도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도 현역세대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어 사회적인 충격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OECD 국가가 당연한 21세기의 주요과제해결의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자 창업지원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2.2 고령자창업의 특성과 한계

고령자들의 창업은 처해진 상황이나 창업의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경희(1999)의 연구는 창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처하는 5가지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고령자는 현재는 건강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청·장년층에 비하여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이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은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둘째, 고령자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볼 때 이들 연령을 감안하면 젊은 계층에 비하여 남겨진 인생기간이 짧으므로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고령자계층과 청·장년층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은 여생이 짧다는 점, 그리고 체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고령자는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재도전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넷째, 고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하여 사고의 유연성에 한계가 있으며 IT 기술 또는 활용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받아들이고 재도전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연장자 특유의 편견과 고집, 권위의식, 사회적 지위에서의 집착 등이 창업 가능한 업종을 제한시키고 창업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 창업은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경배(1999)의 연구에서는 고령자 창업의 5가지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고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이 비교적 오래되어 여유자금이 풍부한 사람이 많으며 두 번째는, 오랜 사회생활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사회생활을 통해 쌓아온 인맥이 넓으며 넷째로는, 고령자의 창업은 수익 창출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인생의 마무리에 접어드는 시점에 있어서 자신에게는 보람을 가져다주고 넓게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섯째는, 청·장년층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의 소득만 기대하는 고령자 층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층이 꺼리는 업종 중에서 고령자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사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 창업을 해야 하며, 사회적인 제도나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3 창업에 있어 고령자의 계층분류

정경배((1999)의 연구에서 고령자 계층의 유형은 능력과 자본력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창업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조건이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계층 모두가 건강하다고 가정할 때, 자본과 능력을 가진 경우, 자본만 가진 경우, 능력과 자본을 적정하게 가진 경우, 자본은 없지만 능력을 가진 경우, 자본도 능력도 없는 경우 등이다.

고령자가 창업하는데 있어 적합한 업종의 조건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조건을 고려할 때 신체적 활동이 필요한 업종보다는 일상적이

고 반복적인 업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는 업종보다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령자 창업은 대부분 퇴직금의 경우가 많으며 노후자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투자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본집약형의 업종보다는 투자비를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인맥활용사업, 수수료 매장형 사업, 공동참여 사업 등 비교적 저수익, 저위험 성격의 업종이 적합하다(박은주, 2002).

<표 4> 고령자 창업의 5가지 유형

구분	특징	업종
능력도 있으면서 자본력까지 갖춘 경우	전문직 종사자나 대기업 임원, 중간관리자, 중소기업의 전문경영자 출신 등 다년간 기업체 근무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고령자로서 1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능력과 자본을 갖춘 계층	브랜드할인전문 대단위상가, 전문경험을 살린 제조업 및 기술 개발산업, 펜션 단지 및 원룸, 자금이 필요한 정보통신 분야, 실버제품 및 바이오관련 생산제조업
능력은 부족한데 자본력만 있는 경우	로또복권 당첨자, 부동산거부, 젊은시절 운이 따르거나 주식투자로 성공하여 수십억대의 재산축적에 성공하였거나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계층	패스트푸드전문점, 초기자본이 많이 드는 임대·설비형 사업, 노인대상관광사업
자본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경우	기업체와 공사기관 출신 퇴직자로서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현금 동원력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활동의 경험이 많은 계층으로 어느정도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여 두고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아실현의 요구와 사회참여의식을 갖고자 하는 계층	펜션형 거주형업, 숙박업, 전자상거래, 실버 및 재혼위주의 결혼 중매인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
능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적은 경우	오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으나, 1억원 미만의 현금 동원력을 가진 계층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야 하는 계층	도서대영업, 세탁편의점, 무점포 자판기 사업, 부동산중개인, 분식점, 실버시터업 등
능력도 자본력도	현금 동원력이 2천만원 미만이며,	원두커피 테이크아웃 이동

부족한 경우	재산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계층으로 이들은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시간을 투자하여 할 수 있는 업종이 적함	형 로드카페, 디카폰카 자동인화기 및 각종 자동판매기 사업, 각종 중개업, 간식형 로드비즈니스형 등
--------	--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04)

Ⅲ. 일본의 고령자창업

1. 일본의 고령화

일본은 2006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은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24년, 14%에서 20%로 증가하는 데는 12년이 경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각각 18년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일본보다 고령화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진,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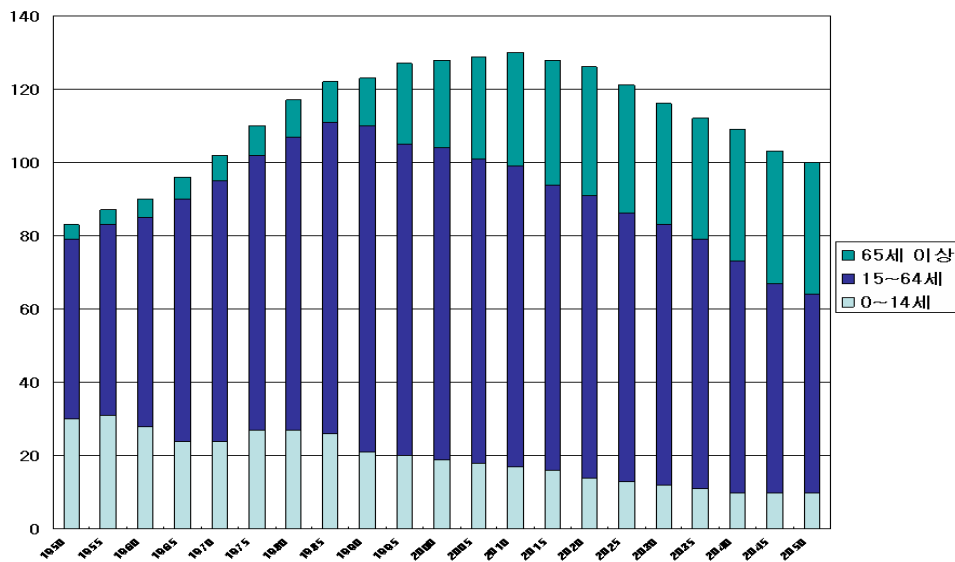
자료 : 한겨레신문(2006)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일본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2035년경에는 일본의 고령화율은 31%에 이르러 인구 3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기형적인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일본의 총인구는 향후 10년간 조금씩 감소하다가 10년 후에는 급감하는 것으로 각종 지표들을 통해 예측되고 있고 있으며 현재의 출생률을 보아 노동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추세가 심화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인구도 1998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사공 목, 2006).

특히, 앞으로 10년간은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베이비붐 세대(1947년~1949년생)인 이른바 단카이세대²⁾가 대부분 60세의 정년을 넘어 대량으로 퇴직하는 시기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20~34세의 젊은층 인구는 2020년까지 약 31% 감소한다고 전망되어 일본경제성장에 있어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자료 : 경제산업성, '신경제성장전략', 2006. 6 사공목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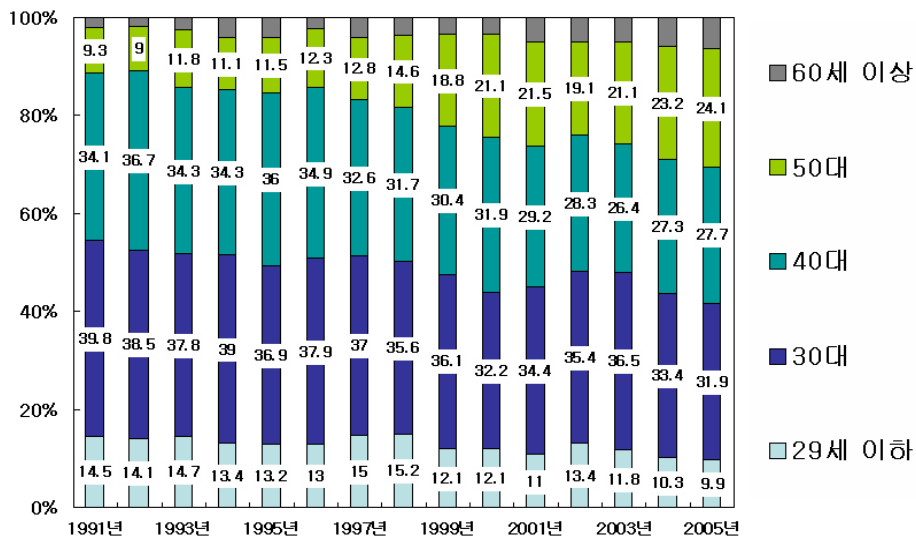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연령별 인구의 추이(1950~2050년)

2) 2007년부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가 60세를 넘어 그 대부분이 정년에 의한 퇴직을 맞이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노동공급감소를 시작해 저축·소비의 변화, 금융·자본시장에의 영향, 나아가서는 일본의 재정, 세수입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이를 2007년 문제라고 부름(사공 목, 2006).

일본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6월 '신경제성장전략'을 수립·공표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경제성장전략 대강'에서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이들 정책 중에는 노동인구의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을 통하여 지금까지 충분하게 활용하지 않았던 잠재노동력에 대한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고령자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역할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 일본의 고령자창업 특징

최근 일본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급격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또한 이러한 고령창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國民生活金融公庫總合研究所, 『2005年度 新規開業實態調査』, 2005, 12.

<그림 4> 일본의 고령자창업 비중추이

일본의 고령자창업의 증가 원인을 보면 자신의 재량껏 일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경험, 지식, 자격 등을 살리고 싶다는 것이 창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연령층에 비해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령창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금이 여유가 있고 과거의 회사 경험상 경영관리 노하우가 풍부한 고령자들의 증가로 자신의 재량껏 일이 가능하며 정년이 없다는 이유로 창업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부형, 2006).

2.1 50대 이상의 창업 증가

최근 일본에서는 50대 이상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창업동기를 보면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는 동기가 50대의 경우가 18.9%, 60대 이상은 11.3%로 나타났고, 자신이 일해 왔던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각종 자격 등을 살리고 싶다는 이유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비율이 50대의 경우는 30.6%, 60대 이상은 27.4%로 나타났다(2005년 신규개업실태조사, 2005).

한편 개업자금에서 차지하는 자기자금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가 23.6%, 60대가 27.9%로, 40대의 13.8%, 30대의 18.0% 등의 타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2 종업원 1인의 초소규모기업 증가

2005년 현재 일본의 고령화 창업 가운데 1인 종업원 기업의 초소규모 창업비율은 50대가 21.8%, 60대 이상이 2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1인 중심의 창업은 향후 자금이 여유가 있고 과거의 회사 경험상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이들이 자신의 재량껏 일을 하며 정년이 없다는 이유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05년도 신규개업실태조사, 2005).

2.3 실버커뮤니티 활성화

고령자의 간병이나 생활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의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즈니스의 대표자 연령분포를 보면 50세 이상의 고령자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창업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들 커뮤니티의 종사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50~59세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이상의 중·고령층이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등 중·고령층 중심의 취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4 유기적인 창업지원체제

이처럼 일본의 고령자세대들이 창업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55세 이상의 고령층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국민생활금융공고에서 개업이나 개업 후의 사업에 필요한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장기저리 용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창업지원을 위한 용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능력개발센터에서 무료로 위업을 알선해주거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장치로 후생노동성 공공직업안정소의 ‘헬로워크’가 있다. 시범 고용 사업, 직업 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직접 찾아주는 일이다. 3명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창업 지원금도 제공한다. 고령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기관인 ‘실버인재센터’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국에 뿌리를 내렸다(박기훈, 2004).

일본은 이미 2006년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한국도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을 목표로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노동력인구의 감소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잠재적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창조적인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 산업계, 지역의 제휴 및 협력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여가개발센터의 40, 50, 60대 연령층의 여가인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연령층의 낮을수록 일 중심의 생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취미, 스포츠, 야외활동, 교육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이부형, 2006). 교육에 대한 열정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학습 활동 참가비율은 일본이 16.2%, 한국이 7.1%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고령자들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인구통계적인 환경이 유사한 일본 고령자들의 창업환경과 특성을 살펴보았듯이 한국도 향후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이들 고령인적자원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5> 한국과 일본의 학습활동 참가 상황

구 분	한국	일본
컬처센터 등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학습활동	2.1	5.5
공적기관이 고령자 전용으로 설치한 고령자학교 등	3.8	5.7
공적기관이나 대학 등이 개최하는 공개강좌 등	1.2	3.5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자택에서 가능한 학습	0.6	3.8
대학, 대학원으로 정규통학	0.0	0.0
각종 전문학교로 정규통학	0.1	0.2
기타	0.7	1.6
참가하고 있지 않음	0.7	1.6

자료 : 일본 내각성, '고령자의 생활과 인식' 2001. 이부형 연구에서 재인용 및 수정

IV. 고령화에 대한 정책

1. 교육지원 측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재은행,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인력지원기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기관들은 재취업이나 고용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몇몇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창업 및 취업교육 현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이인재, 2005). 첫째, 수행기관의 상호 연계성 미비, 부처간, 부처 내 상호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취업·창업정보제공의 한계와 행정 전달체계의 분산과 일부 정책의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체계적인 고령자 전문 취업·창업 프로그램 미비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단기 교육과 장기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정부 지원 미흡으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넷째, 고령자인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미흡하다. 교육방법이 강의 중심이며, 프로그램도 운동·건강관리 등 일률적·오락위

주로 내실 있는 고령자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여 고학력·저연령의 고령자계층의 참여가 저조하다. 또한, 고령자창업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과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고 있으나 연령별 디지털 격차 현상의 심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체계가 미흡하다.

<표 6> 고령자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구분	수행기관	사업대상	일자리 사업영역	사업규모	고유사업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50세 이상	취업알선	168개소	노인취업알선
고령자 인재은행	지역YMCA 사회복지회관 대안노인회 산업인력관리공단	55세 이상	취업알선	43개소	노인취업알선
노인인력지원 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65세 이상	일자리창출	30개소	노동을 통한 노인 사회참여
노인취업알선 센터	대한노인회 지부	60세 이상	취업알선	70개소	노인취업알선
노인복지회관	지자체직영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60세 이상	취업알선	83개소	노인여가활동

2. 자금지원 측면

고령자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실직자, 여성가장,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창업자금과 용자는 <표 7>과 같다.

<표 7> 고령자 창업자금과 용자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한도	상환기간	상환방법
소상공인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소상공를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5천만원 이내	5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가동 중소벤처 기업	업체당 최고 10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3개월 또는 6개월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3개월 또는 6개월 분할상환)
	창업 및 육성사업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공장경락 자금지원 사업	법원, 성업공사, 은행 등으로부터 공장을 경락 받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금 지원사업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를 위한 공장매매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지원			
	벤처기업 지원사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단, 동 자금의 기 지원업체 및 일부 서비스업종은 제외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자영업창업자금용자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장애인1인당 5천만원 창업자금을 용자	7년간 지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자영업 영업장소 전세지원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이내	1년(5년까지 연장 가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저소득여성가정 생계형 창업지원		소득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생계형 창업지원 지원	생계형 소규모 자본 창업 시 점포임차금 5천만원 용자	2년(1회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2004)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에서 고령층을 위한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다.(정경희, 200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규모 창업지원은 중년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인 고령자 창업 및 소득창출 지원이 미흡하다. 특히 전문·사무직 고령자의 직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노인창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현재 운영 중인 자금지원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지원자의 수가 적은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자금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창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이 수도권에서는 획득이 용이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지원요건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공공창업기관의 사업간 대상의 중복성이다.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관련사업이 유사한 목적을 띄고 중복 시행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특성화된 사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자금의 지원은 제대로 된 창업의 촉진측면이라기 보다는 실업극복 및 고용창출의 효과측면이 더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도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복잡한 선정 절차나 기본 조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빈곤층이나 노숙자 등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이들은 창업자금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V. 고령자창업 활성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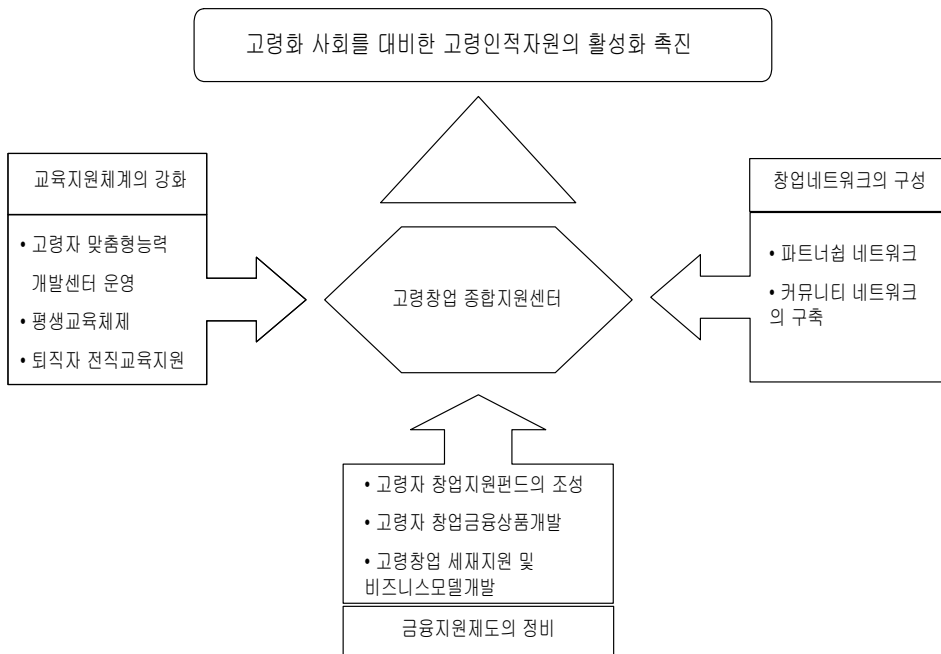
한국의 베이비 붐세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단카이 세대와는 차이가 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일본처럼 전쟁을 경험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국내 베이비 붐세대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준비시간이 없는 가운데 급작스럽게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들이 충분히 고령화가 된 이후 사회가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충격’이 적음에 따라 한국과 같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퇴직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예상기간이 일본은 36년임에 비해 한

국은 26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지니고 있는 점과 고령화속도가 우리와 비교하여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적지원능력,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발전해 왔다.

개인의 금융자산 규모와 자산의 건전성도 일본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다. 총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일본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12.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국내 소비를 주도한 거대 인구집단인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의 1인당 개인금융자산 규모(개인연금 포함)는 2,246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본격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위축할 경우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의 고령화는 선진국들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교육지원에서의 방안, 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 그리고 커뮤니티를 활용한 네트워크 관리방안의 세 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 고령자창업을 위한 고령인적자원 지원체계

1. 교육지원체계의 강화

고령자들이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정보의 부족을 고려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창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고령자 개개인의 올바른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고령자를 위한 창업교육에 대한 강좌는 있으나 실제 교육내용은 고령자들에게 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창업에 필요한 교육들로 일관되어 있어 고령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직업능력기초단계, 각 유형별 전문능력 단계로 나누어 기초단계에서는 체력관리, 감정조절, 약물조정, 인지능력, 일상생활능력 등 모든 고령자에게 필요한 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고 각 유형별 전문능력단계에서는 각 유형별 직업능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한 단순한 취미 중심의 교육보다는 고령자세대들의 능력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고령자능력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일본과 같이 무료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알선하거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능력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과 방식은 눈높이에 맞게 관찰과 실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의 내용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실제상황에서의 적용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형 고령자들에게는 정보수집능력, 자신관리능력, 경영능력 프로그램이, 전문성취형 고령자들에게는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고령자들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기본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문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2 평생교육체제의 정비

퇴직 후에도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고령자창업교육, 고령자창업박람회 등을 통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인프라 체제를 갖추어 고령자세대들의 창업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혹은 사회교육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고령창업에 대한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누구나 교육기회를 쉽게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여 이루어지는 창업대학원에 고령자 창업 강좌를 추가한다든지 혹은 실버 중심 도시에 위치한 대학에 고령자 창업대학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보다 쉽게 창업정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나아가 향후 대학에 고령자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고령자의 기술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1.3 퇴직자 전직 지원제도

기업 내에 퇴직자들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퇴직자들이 전직 후 진로상담과 커뮤니티, 그리고 홍보 등을 맡고, 창업과 재취업관련 전문교육은 컨설팅 회사에 위탁하여 퇴직 후의 창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경련, 2006).

<표 8> 삼성전기 전직지원 실적

	재취업	창업	자격취득	계	전직률
2002년	24	12	5	41 / 51명	80.4%
2003년	37	5	53	95 / 166명	57.2%
합계	61	17	58	136 / 217명	62.7%

1.4 이러닝(E-learning)시스템 도입을 통한 원격교육센터의 활용

최근 이러닝(E-learning)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접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보급과 기술의 발달로 고령자들의 정보화수준도 매우 향상되었으며, 미래 고령화세대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매우 익숙한 세대일 것이다. 따라

서,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온라인상의 교육을 통해 시간상, 공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창업교육을 받음으로써 창업의 준비기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 금융지원제도의 정비

고령자 창업을 위한 경제적 자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지원정책은 고령자에게 확대해야 하며 과거와는 달리, 향후 금융기관의 주요 거래고객은 막강한 자금능력을 지닌 고령자 세대들이다. 창업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들 고령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에 있어서 업종에 따른 차등용자와 보증인 설정 등의 어려움을 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1 고령창업 금융상품 개발

최근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노후를 대비한 금융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고령자들을 위한 창업금융상품의 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다가올 미래 고객인 고령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은행의 금리만을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령창업을 대비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별로 고령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을 위한 모든 금융업무지원을 하며 대출을 받는 대상자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대출과 이자관리 등의 비용효과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예를 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용자서비스, 컨설팅을 해주고 분기별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은행은 우수 고령자 고객을 위치할 수 있고 고령자는 편리하고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은 55세 이상 고령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개업이나 개업 후의 설비자금 혹은 운전자금에 대해서 장기저리 용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2 고령자창업지원펀드 조성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들의 창업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소위 ‘고령창업자금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직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고령자의 창업에 대해 일정자격요건 및 심사를 거쳐 경쟁력 있는 창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3 고령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비즈니스모델의 개발

고령자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창업기업 중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예를 들면 70% 이상의 고령자 종업원과 총 급여의 70% 이상 고령자 지급)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제도의 도입과 보조금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고령자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일반인과 차별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고령자 우대 보상플랜을 개발하는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창업 및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창업네트워크의 활성화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창업에 대해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역간의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형성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창업지원 네트워크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3.1 파트너십 네트워크

각 지역별로 창업방법, 사업 상담 등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지역경제개발기업체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네트워크의 일부부분으로서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의 창업 및 사회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창업전문가 혹은 창업관련기관의 일대일 상담 혹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을 통한 창업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3.2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구축

고령자들은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성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본의 경우 동우회나 지역커뮤니티 등 횡적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은 고령자의 비율은 50대가 39%, 60대가 15%에 불과한 것을 보면 고령자일수록 이러한 커뮤니티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형성은 매우 증가할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 한국의 60대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2006년 상반기 기준)은 15.2%로 나타나는 등 향후 고령자 세대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경로당을 네트워크화 하여 인터넷 고령자클럽을 만들어 창업정보 등을 공유하며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VI. 결 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 비해 사회구조적으로나 당사자 모두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고령화인력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재취업 혹은 정년의 연장이라는 고용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고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이들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창업을 통하여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보장비용을 줄이고 생계유지라는 기본적인 목적이외에도 젊음을 유지하고 여가를 활용하여 사회에 재기여할 수 있는 창업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령자인적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버창업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창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유기적인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전방위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지원제도의 정비이다. 창업교육과 함께 고령자가 자신의 창업에 대한 도전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고령창업자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고령자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각종 세제지원과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창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 금융의 지원과 함께 고령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창업네트워크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창업자와 창업전문가, 창업관련기관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령창업을 위한 수직적인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점차 증가하는 고령인력들에 대하여 고용과 창업의 두 가지 축을 형성하는 고령자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누구나 제2의 인생설계를 꿈꾸며 현재에 대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동배 · 이윤화 · 안인경(2003),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4 No.1, 107-127.
2. 김수원 · 이지연(2006), 중 · 고령자 능력개발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프로그램 연구, 한국능력개발원
3. 김재철 외(2006), 인구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I-가계의 주식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4. 김현진(2003),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5. 류만희(2005), 근로빈곤층의 자활과 소액창업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45-556.
6. 박기훈(2004),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본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7. 박은주(2002), 고령자 창업 욕구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8. 변재관(1999), 고령자 창업지원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사공 목(2006), “일본의 신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10. 선우 덕(2005), 저출산국가의 고령인력활용방안,
11. 엄동욱(2005), 고령화 · 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2. 이경희(1999), 세계 노인의 해 기면 제1차 심포지엄 자료집.
13. 이부형(2006), “Senior Renaissance 시대의 도래 :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활용” 한국경제주평, Vol.43, 현대경제연구원
14. 이인재(2005), 참여복지시대 지방분권정책과 노인복지과제, 5차노인복지실무교육자료
15. 임춘식(2006), 노인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16. 전채근(2003), 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여름호, 157-178.

17. 정경배 외(1999),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 창업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정경희(2004), 고령화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종단적 연구, workshop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한국산업인력공단(2004), 고령자취업가이드, 중앙고용정보원.
20. 노동부(2006), 고령자고용 현황과 정책과제
21. 대한상공회의소(2007), 고령사회와 고령인력 활용 증진방안
22.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대응방향, 조사연구보고서
23.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24.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6), 노년을 살다, Vol.2, 가을호
25. 한겨레신문, 2006. 11. 10.
26. 國民生活金融公庫總合研究所, 『2005年度 新規開業實態調査』, 2005, 12.
27. 經濟産業省, ‘新經濟成長戰略’, 2006. 6.

Abstract

A Study on efficient application of elderly human resource through the aged for start business

Jung, Lee-s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lternatives to help for the aged to implement start business as a method to recreate the aged population for their second life. There are three considerations that supports start business for the elderly.

The first is to reinforce educational support system for the aged. Through the lifelong education, the aged require easy start business' information. This is not only government's job, a local autonomous entity is to support in the form of organic organization. The second is the maintenance of financial support system. Besides start business education, various financial support system must serve for the aged to challenge their start business enthusiastically. The last consideration is formation of start business network that joins the aged efficiently.

Based on these aspects, the application for increasing elderly human resource is to consider both employment program of the aged and also start business program for them.

*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rade, TongMyong University